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3-14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3-14
2021 년 03 월 14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275199331](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275199331)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 년 03 월 14 일

차례

1. [강산도바뀌었건만]	3
2. [자꾸건방지게뒤지지마라]	3
3. [대충너무할말이없어서제목도쓸게없다는제목]	4
4. [자본주의없는게임문화란있을수없을까?]	5
5. [언제나같은파쇼들의근황]	6

그리고그미얀마군부를옹호하는소위‘반제국주의’를주창하는파쇼와동급인분들이계시다. 미얀마에서치러진총선은실제로영터리주먹구구선거가맞으며, 시위대의등뒤에는미제가붙어있고, 맹목적인혐증감정을조장한다는식의언급을열변을토하시며어떻게든미얀마쿠데타의정당성을부여하려고하신다. 물론‘진정한민주화와자주독립’을운운하기는하지만, 그분들의속셈을누가모를줄아는가. 결국아무튼미얀마군부는미제에반대하는세력이고, 아웅산수치를지지하는세력이존재하는시위대는미제에복무하는세력이란것이다.

우리아나키스트연대는지난주일요일, 미얀마쿠데타에반대하는시위에참여했다. 물론우리는미얀마인민대중의회민주주의라는틀에서벗어나진정한민주주의를구가하기를바라며, 노동자대중이산업현장을통제하며군부라는압제에서벗어나기를바란다. 그리고‘자주독립’을열렬히주장하시는분들과아마도거의동등한수준으로미제와서구제국주의세력들에대해반대한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우리는민중에게총부리를겨누고총을싸대는파쇼세력들을지지하지않는다. 우리는자유를추구하며더이상국가권력에의해죽어나가고싶지않아하는민중의투쟁을지지한다. 우리는해외자본주의세력(거기엔물론남조선도포함되어있다!) 에빌붙어노동자를착취하고자금을긏어모지만‘반미반제’를한다고어떤사람들이주장하는군부세력에대해단호한반대를표명할것이다.

우리아나키스트연대는우리가할수있는힘을다해미얀마민중과함께연대할것이다. 설령그군부가‘반미반제’를걸어로표명한다할지라도, 자유를위해거기에저항하는노동자민중과함께할것이다. 틀린것은틀린것이다. 우리를그누군가가소아병이라부를지라도, 틀린것은그저틀렸을뿐이다.

“미얀마쿠데타규탄시위또유혈진압…누적사망자 100 명육박 (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4021951084>

“[긴급진단] 미얀마사태에대한고찰-단순한반독재민주화시위로만볼수있는가?”: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4>

이번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보다는 탈자본주의한 아나키스트 코윈에서 문화 콘텐츠, 특히 게임 문화가 어떻게 존재할지 간단한 상상도를 같이 그려보려 한다. 아나키스트 코윈 사회에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면 무엇이 좋을까? 우선 내가 생각하는 아나코코뮤니즘의 기준으로 개개인이 하려는 노동과 학습이 코윈에 필요한 것이라 인정받으면 효율성이나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코윈 내에서 청소와 요리를 담당한다면 그 노동의 효율성이나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코윈 내에서 충분히 노동한다 생각하는 이상 코윈 내에서 제공하는 의식주 외에도 교육 서비스, 문화 생활 등을 즐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 콘텐츠 생산자 역시 코윈에서 거부감이 들 정도로 비사회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코윈과 협의하면서 자주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래의 문화 콘텐츠 풀을 상상해본다면 제작자의 개성이 넘쳐나는 거대한 인디 문화 콘텐츠가 주류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 거대한 프로젝트는 더 이상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인가?” 물론 혁명 직후에는 그럴 수도 있다. 아나키스트 코윈에 맞춰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회전하는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은 주목을 많이 받는데 비해, 문화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기존에 생산된 문화 콘텐츠를 카피레프트에 따라 배포하기, 해당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컴퓨터와 게임기 같은 기기 확보 정도만 주된 관심사로 주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나키스트 코윈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개개인의 제작자들이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더욱 큰 프로젝트를 생산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욕구에 동조하는 다른 제작자와 이 제작자가 속한 코윈들이 모두 모여 논의와 합의를 한 끝에 거대한 프로젝트 제작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거대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그 프로젝트의 산물은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과 자유시장의 탐욕으로만 추진력을 얻어 생산된 문화 콘텐츠와 달리 훨씬 사용자 친화적이면서 개성적인 인류 문명의 자산이 될 것이다.

”” 메이플스토리, '획득 확률 0%' 아이템 유저에 판매해 논란””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110915014429

5. [언제나 같은 파쇼들의 근황]

미안마를 지배하고 있는 군부 독재, 파쇼 세력들이 여전히 피해를 벌이고 있다. 이전에는 사상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군부 독재 세력에 의해서 사망한 시위대만 하더라도 약 100 명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는 외신과 현지 언론에 확인된 숫자를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 실제로는 100 명이 상,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군부 독재 세력에 의해 죽었을 것이다.

1. [강산도 바뀌었건만]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째가 된 날이었다.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 이래 최대 규모였던 후쿠시마 사고는 유무형의 형태로 일본 사회 전체에 씻기 힘든 상흔을 남겼으며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태다. 붕괴되어 방사선을 뿜어 대고 있는 세원자로에는 아직까지 접근도 힘든 상태며 이를 식히기 위해 매일 나오는 많은 오염수를 감당해야 한다.

그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지금, 우리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바뀌었으며 얼마나 안전해졌는가?

안타깝게도 세 질문에 모두 회의적인 대답만 나올 수 있을 뿐이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고리 1호기만을 폐쇄시켰을 뿐 마찬가지로 낙후된 2호기의 연장은 피하고 있으며 5, 6호기의 건설을 강행하는 등 내뿜었던 말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다. 안전 문제 또한 변한 게 없다. 조선일보와 같은 지배층의 언론들은 항공기가 충돌해도 끄떡없다며 선전 포를 쏟아내지만 실상은 한수원이 지난 해 원안위에 제출한 관리서에 조차 재해에 의한 광역 손상 발생 시 필수 안전 기능이 유지되지 않음에 확인되고 있고 후쿠시마 이후 계획된 후속 안전 대책 이행률은 56%에 불과하다. 작년 태풍에 의한 가동 중단은 미흡한 안전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안 에너지에 대한 투자 또한 미미한 상태로 민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뀔 시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강산이 바뀔 동안 지배자들은 여전히 바뀌지 못한 모양이다. 다음 10년 동안, 진정으로 안전하고 평화적인 에너지로 돌아가는 사회에 당기 위해선 민주주의의 변혁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 후쿠시마 참사 10년'...' 안전한 지구에서 살고 싶어요”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8192&ref=A>

2. [자꾸 건방지게 뒤지지 마라]

내 고위간부들이 계속 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3월 12일에는 분당에서 고위간부가 투신했고, 13일에는 파주에서도 한 고위간부가 목숨을 매 죽었다. 한 곳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한 곳에서는 ”국민께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 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다.

왜 자꾸 건방지게 죽고 난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주택을 담당하는 이들이 주택 혹은 택지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 놓고는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왜 죽어 나가는 것인가? 자기 한 사람만 죽으면 가족들은 앞으로 그 시세 차익을 이용해 잘 살 수 있을 것

이라는, 한집안의가장으로서가족들에게금전적이득을안겨주어모든책임을다 했으니걸로족하다는판단인가? 그렇다면그것은마지막까지자신의가족만을 생각한것이지, 죽는그순간까지도자신의말은바소임을전혀생각하지않았으니 그죽음마저도일말의동정마저받을길이없을것이다.

막말로, 잘못을할수도있다. 하지않는것이가장좋겠지만인간이기에잘못을 할수있다. 물론잘못한것은다시되돌릴수없지만, 그에대한책임을온전히지고다 시올바른방향으로되돌리기위한부단한노력을또할수있기에인간의자유지와 행동들은송고하다. 하지만자신의잘못, 자신주변의잘못들을책임지지도않고, 잘못을되돌리려는시도조차하지않고죽음으로써자녀들혹은가족에게계승의상 승을꾀하고부의세습을기도하는이들의망종짓거리는재고의여지없이침을뱉어 줄수밖에없다.

다시한번말한다. 자꾸건방지게뒤지지마라. 당신들의잘못은모두가좋은환 경에서살권리를누리고자하는모든대중이적절한때심판해야할몫이다. 감히죽 음으로사죄한다느니하는말을건방지게꺼내지말라. 대중은그런식으로는당신 들을용서할마음이전혀없다. 당신들이지금해야할일은잘못되었던일들을바로 잡고모든대중이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살수있는방법을, 당신들의통장잔고 늘리려고머리굴린그만큼의노력보다더하는것이다. 건방지게자꾸뒤지지마라.

”LH 고위간부경기분당서투신...’ 국민에죄송’ 유서 (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2133251004>
” 파주서도 LH 사업본부간부숨진채발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3035053060?](https://www.yna.co.kr/view/AKR20210313035053060?input=1195m)
input=1195m

3. [대충너무할말이없어서제목도쓸게없다는제목]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코레일네트웍스, LG 트윈타워, 뉴대성운전학 원에서해고당한 1,000 명의노동자들이민주당박영선서울시장후보선거사무 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해고문제에대하여집권여당민주당과박영선서울시 장후보가해결하라고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촛불투쟁으로권력을잡았고 180 석의석을확보했지만고달프고고통스러운노동자의삶은바뀐게없다” 고말 했다.

당연하다. 어느당이정권을잡았건, 어떻게그정권을잡았건, 노동자의고통 스러운삶은바뀌지않는다. 국가는결국유산계급의집행위원회이자경호원에불 과하기때문이다. 국가는결코자기주인님인자본계급의뜻을거스를수없기때문 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이라는색깔이다른 4 개의정권이, 투쟁하

는노동자에게달랐던것은, 노무현이손배가압류를청구했다면이명박은성을쌍 았고, 박근혜가물대포를쏘았다면문재인은집회대오를집에보내고구속영장을 보낸것뿐이었던것처럼말이다.

그런데대체왜, 아직도, 정부가, 집권여당이책임지라고하는가. 저들은책임 질의지도없고, 책임질역량도없다는것이명약관화한데말이다.

제발, 구걸하지말자. 노동자들스스로의힘으로투쟁하고, 그투쟁으로얻어 낸결과를겸허히받아안자. 아니. 구걸을하려고해도차라리한푼줄수있는사람한 테하자. 노동조합의조직이, 투쟁의역량이, 연대의힘이부족하여강고한투쟁으 로승리할수가없을것같다면, 차라리금호아시아나박삼구에게, 한국철도공사손 병석에게, LG 그룹구광모에게무릎꿇고음소를하자. 그렇게노동자들이스스로얻어낸결과만이, 노동자들에게오롯이남을수있는무언가가아닌가.

정치적이합집산과야합과계급연합은, 그것을전문적으로하는저들이일컷하 라고두자. 저들의야합에우리의요구와승리를맡기지말자. 구걸은, 하지말자.

””1000 명해고방치마라”.. 해고노동자들, 박영선에면담요청” :
[https://news.v.daum.net/v/20210312115405646?](https://news.v.daum.net/v/20210312115405646?x_trkm=t)
x_trkm=t

4. [자본주의없는게임문화란있을수없을까?]

최근넥슨의메이플스토리라는게임내에서판매중인확률형아이템에대해여 러논란이불고있다. 그중가장큰사건은어떤기능은얼핏보면아주낮은확률이지 만그래도이론상은나올것처럼묘사되었지만막상공개하니아예안나오는것으로 프로그래밍되어있었다는것이다. 좀직설적으로비유하자면돈을걸고카드게임 을할때, 즉, 도박을할때밀장빠기를하는것과다를바가없고자본주의체제에맞게 말하자면대놓고소비자를기만한것이다.

하지만그렇다면‘공정하게’정보를공개하고확률형아이템을판매하면서, 가 상의물질에어마무시한자본주의적가치를부여한다면그것은소비자기만이아닌 가? 한때그러한아이템을소비도해봤고비록잠깐이지만그러한아이템을개발하 는일을해본입장에서는이제와서되돌아켜생각해보면차마아니라고는말하지못 하겠다. 한편으로는그러한아이템을만들수밖에없는게임개발자들의심정을이 해하기도하면서도, 그렇기에필자는더더욱탈자본주의의중요성을느낀다. 보통 은이런개발환경을비판하면서자본주의의문제점에대해역설하겠지만이번에는 그러지않겠다. 왜냐하면자본주의가문화컨텐츠개발에주는악영향에대해서는 딱히사회주의자나아나키스트가아니더라도충분히알기쉽기때문이다.